

대구시 동대구로의 경관조명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 동대구로 경관조명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Residents Attitude Survey of Landscape Lighting of Dongdaegu in Daegu)

안옥희* · 이인효**

(Ok-Hee An · In-Hyo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동대구로의 경관조명에 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야간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명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의 도시이미지는 교육과 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관디자인 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자연과 어울리게’가 높게 나타났다. 야간경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가장 열악한 것은 ‘조명’이며, 현재 조명상태나 밝기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students in twenties of 500 people who has been living in Daegu were surveyed to landscape lighting on Dongdaeguro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residents.

As a result, the factor that most influenced to the night landscape lighting is the 69.2[%] to the highest and the image of Daegu city is education and culture were the highest.

Need to focus on the Daegu landscape design is ‘nature harmony’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poorest effect in the night scenery is ‘lighting’ and lighting conditions and brightness were negative.

Key Words : Landscape Lighting, Image Of Daegu City, Landscape Design

1. 서 론

경관조명은 밤의 공간을 밝히고 건축의 특성을 부각시키며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심미적 연출을 하며, 도시의 야간경관은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조화로운 경관조명이 형

* 주저자 : 영남대학교 가축주거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가축주거학과 박사과정
Tel : 053-810-2860, Fax : 053-810-4667
E-mail : komdori33@nate.com
접수일자 : 2009년 7월 15일
1차심사 : 2009년 7월 17일, 2차심사 : 2009년 10월 16일
심사완료 : 2009년 11월 5일

성되어 있는 도시공간이라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시 방문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특히 도시 시가지의 경우 특색 있게 경관조명을 디자인하면 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경관조명의 전문디자이너가 부족하고 관련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도시경관조명에 대한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학술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DBPIA(누리미디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논문원문정보를 이용하여 엄격한 논문심사과정을 거쳐 공표된 2000년 이후의 경관조명에 관한 연구(98편)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5편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최택진 외(2008)[2], 정근영 외(2001)[3] 등의 경관조명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의 단계로 대부분 실태조사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명설계는 평균조도를 설정하고 램프의 칼라를 선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도시의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경관조명의 합리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제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유근(2004)[4], 박성률 외(2008)[5], 신주영 외(2007)[6]의 연구에서 보듯이 특정 건물이나 가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관조명에 관한 주민의 의식을 파악하여 거주자의 의견이 반영된 경관조명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은 대구시 동대구로로 선정하였다. 동대구로는 대구광역시의 최대의 상업업무구간이며, 경관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구간은 총 길이 약 2,250[m], 폭은 약 70[m]로, 도시 내 도로로는 매우 넓은 6~10차선의 도로이다.

연구방법은 시민의 의식을 반영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야간활동이 많은 대학생(20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사항,

대구의 도시 이미지, 야간조명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동대구로의 야간조명에 대한 의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458부를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방법 개요
Table 1. Outline of study method

조사방법	설문조사
조사대상	대구시 거주 대학생 500명 (유효회답율 89.8[%])
조사내용	① 일반적인 사항 ② 대구의 도시 이미지 ③ 야간조명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④ 동대구로의 야간조명에 대한 의식
조사기간	2008년 9월 3일~9월 17일
분석 방법	SPSS 14.0을 이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는 평균 22.83세이다. 대구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이외의 지역에서의 거주경험이 없는 사람이 62.4[%]로,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대구광역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활동 시간은 1주일에 평균 12.9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동대구로에 방문하는 횟수는 1달에 1번 이상이 63.5[%]로 나타났으며, 특히 거의 매일 방문하는 비율이 12.0[%]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야간활동이 활발하여 경관조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연구결과의 내용
Table 2. Matters in subjects

변 인	구 분	N(%)
연 령	M(SD) 22.83(2.19)	
성 별	남	210(45.9)
	여	248(54.1)
대구 거주 기간(y)	10 이상	350(76.8)
	10~7	18(3.9)
	7~4	18(3.9)
	4~2	15(3.3)
	2~1	24(5.3)
	1 이하	31(6.8)
대구이외의 지역에서의 거주 경험	없다	279(62.4)
	있다	168(37.6)
대구 이외의 지역의 거주기간(y)	5이하	86(51.5)
	6~10	33(19.8)
	10 이상	48(28.7)
야간활동시간 (h/week)	5 이하	197(44.3)
	6~10	83(18.7)
	11~20	75(16.9)
	21~30	61(13.7)
	31~60	29(6.5)
M(SD) 12.92(12.9)		
동대구로에 방문하는 횟수	거의 매일	55(12.0)
	1주일에 2~3번	62(13.6)
	1주일에 1번	42(9.2)
	1달에 2~3번	67(14.7)
	1달에 1번	64(14.0)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167(36.5)

3.2 대구의 도시 이미지 분석

대구의 도시 이미지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은 표 3에 나타내었다. 대구의 도시미관은 ‘매우 아름답다’ 5점에서 ‘전혀 아름답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척도에서 평균 2.94점으로 나타나, 다소 아름답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대구의 도시 이미지는 문화(25.6%), 교육(21.6%)의 순으로 나타나, 대구는 「교육·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였다. 대구의 이미지색은 44.8%가 녹색이라고 하였다. 대구 경관디자인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36.5%가 ‘자연과 어울리게’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구를 표현하는 이미지색과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대구의 랜드마크는 대구타워(25.8%), 국채보상공원(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대구역은 6%에 불과하여, 동대구역은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3. 대구의 도시 이미지
Table 3. The city's image of Daegu

변 인	구 분	N(%)
대구 도시미관에 관한 견해	매우 아름답다	5(1.1)
	어느 정도 아름답다	100(21.9)
	그저 그렇다	239(52.4)
	별로 아름답지 않다	86(18.9)
	전혀 아름답지 않다	26(5.7)
M(SD) 2.94(0.823)		
대구의 도시 이미지	교육	98(21.6)
	문화	116(25.6)
	역사	20(4.4)
	도시 건축물	41(9.1)
	자연	79(17.4)
	시민	64(14.1)
	기타	35(7.7)
대구를 표현할 도시 이미지색	빨간색	50(11.0)
	노란색	36(7.9)
	녹색	204(44.8)
	파란색	62(13.6)
	보라색	12(2.6)
	검은색	14(3.1)
	흰색	5(1.1)
	회색	52(11.4)
	기타	20(4.4)
	대구 경관디자인시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아이덴티티 창출
자연과 어울리게		167(36.5)
도시 미관 향상		131(28.7)
문화유산의 계승 보전		10(2.2)
시민과 친근하게		91(19.9)
기타		4(0.9)
대구의 랜드마크	대구타워	117(25.8)
	국채보상공원	93(20.5)
	수성못	44(9.7)
	대구종합경기장	44(9.7)
	동대구역	27(6.0)
	기타	127(71.7)

3.3 야간조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야간조명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을 조사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내었다. 야간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명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경관에서 가장 열악한 것 또한 조명이 25.3%로 가장

표 4. 야간조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Table 4. The general recognition of night lighting

변인	구분	N(%)
야간경관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	조명	317(69.2)
	건축물	50(10.9)
	색채	36(7.9)
	도로상황	30(6.6)
	상징조형물	24(5.2)
	기타	1(0.2)
야간경관에서 가장 열악한 것	조명	117(25.8)
	건축물	92(20.3)
	색채	81(17.9)
	도로상황	76(16.8)
	상징조형물	82(18.1)
야간조명의 역할	도시의 이미지 제고	176(38.5)
	도시의 안전 확보	149(32.6)
	도시의 동선 형성	43(9.4)
	도시민의 관광자원화	41(9.0)
	도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46(10.1)
	기타	2(0.4)
대구의 야간조명의 개선점	전반적으로 밝게 함	94(20.8)
	조명기구의 디자인을 개선함	121(26.8)
	거리의 특성을 나타나게 함	206(45.7)
	눈부심이 너무 강하지 않게 함	24(5.3)
	기타	6(1.3)
대구에서 가장 잘된 야간조명	대구타워	56(12.2)
	수성못	31(4.5)
	월드컵 경기장	48(10.4)
	두류공원	12(3.6)
	국채보상공원	15(3.3)
	수성교	10(2.2)
	기타	13(4.2)
야간조명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이 있다	42(9.2)
	조금 관심이 있다	176(38.5)
	보통이다	138(30.2)
	조금 관심이 없다	64(14.0)
	전혀 관심이 없다	37(8.1)
M(SD) 3.27(1.07)		
대구의 야간조명 상태 평가	매우 좋다	7(1.5)
	조금 좋다	56(12.3)
	보통이다	249(54.5)
	조금 나쁘다	121(26.5)
	매우 나쁘다	24(5.3)
	M(SD) 2.94(0.823)	
대구의 야간조명 밝기	매우 밝다	10(2.2)
	조금 밝다	44(9.7)
	보통이다	255(56.0)
	조금 어둡다	139(30.5)
	매우 어둡다	7(1.5)
	M(SD) 2.80(0.717)	

많았다. 즉 야간경관에는 조명이 매우 중요하나 그 실정은 가장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야간경관조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의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야간조명의 역할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38.4%), 도시의 안전 확보(32.5%)가 높게 나타났다. 야간조명이 거리를 밝게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 못지 않게, 거리의 표정을 만들고 야간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경관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구의 야간조명의 개선점은 ‘거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밝기확보나 기구디자인과 같은 각 조명의 특성보다는 거리의 특성을 반영한 토털 디자인적 적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에서 잘된 야간조명을 경관특별관리구역이 있는 15개의 건조물을 대상으로 알아 본 결과, 대구타워가 12.2%로 1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대상지에 있는 동대구역사는 순위에 오르지 않았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동대구로 주변의 야간조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조명에 관한 관심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27점으로 약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야간조명에 관한 평가는 평균 2.94점으로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야간조명 상태 평가 또한 평균 2.80점으로 다소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3.4 동대구로의 야간조명 현황 분석

본 연구대상지인 동대구로의 야간조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대구로에서 중요한 건조물은 동대구역사(東大邱驛舍), 동대구역 주변지역, 동대구로 가로지역으로 나누어 야간조명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동대구역의 야간조명 현황에 대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동대구역의 경관을 가장 해치는 것은 ‘혼잡한 거리’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대구역 앞에는 많은 대중교통들이 거리를 혼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대구역의 야간조명의 역할은 ‘거리의 얼굴을 만드는 빛(랜드마크)’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

표 5. 동대구역(관문지역)의 야간조명 현황
Table 5. Present condition of Dongdaegu station

변 인	구 분	N([%])
가장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	개성없는 건물 외관	87(19.4)
	어두운 조명	44(9.8)
	조화롭지 않은 색채	54(12.1)
	혼잡한 거리	151(33.7)
	통일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88(19.6)
	기타	24(5.4)
야간조명의 역할	거리의 얼굴을 만드는 빛(랜드마크)	135(30.0)
	도시의 구조를 알기 쉬운	81(18.0)
	야간경관의 정비	67(14.9)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인 야간경관	67(14.9)
	개성 있는 야간경관	53(11.8)
	활동적인 거리를 만드는 빛	103(22.9)
기타	11(2.4)	
가장 중요한 조명의 종류	광장 조명	142(31.6)
	가로 조명	103(22.9)
	건축물 외벽 조명	133(29.6)
	간판 조명	14(3.1)
	광고 조명	9(2.0)
	수목 조명	46(10.2)
	기타	3(0.7)
도시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조명의 밝기	88(19.6)
	광원색	143(31.8)
	광원의 종류	52(11.6)
	조명기구의 디자인	81(18.0)
	조명기구의 배열	78(17.4)
기타	7(1.6)	
야간조명이 가장 개선해야할 점	거리를 밝게 해야 함	95(21.0)
	조명기구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야 함	85(18.8)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함	185(40.9)
	야간조명의 눈부심이 강하지 않게 해야 함	32(7.1)
	광원의 색을 개선하여야 함	25(5.5)
	광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함	30(6.6)
가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명색채	노란색	119(26.1)
	녹색	86(18.9)
	파란색	85(18.6)
	흰색	96(21.1)
	기타	11(2.4)

대구역의 가장 중요한 조명은 광장조명이 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대구역의 야간조명 중 도시경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광원의 색’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가 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대구역의 가로와 가장 어울리는 야간조명의 색채는 ‘노란색’이 2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동대구역의 야간조명을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광장조명을 중심으로 노란색의 광원을 적용하여 계획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구역의 야간조명에 대한 의식은 표 6에 나타내었다. 야간조명의 상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1점으로 다소 나쁜 편이며, 밝기는 평균 2.94점으로 다소 어둡다고 평가하였다. 동대구역의 건물과 야간조명의 조화는 평균 2.78점으로 다소 조화롭지 않다고 답하였다.

즉 동대구역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의 의식은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이며, 특히 건물과 야간조명의 조화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조명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대구역 조명환경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동대구역 주변지역을 7구역으로 나누어 야간조명의 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표 7). 그 결과, 동대구역사(구관) 앞 광장(택시승강장 포함)구역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99점, 동대구역사(구관)좌측(계단을 포함한 주차장연결통로)도 평균 2.68점, 동대구역사(구관)우측(계단을 포함한 고속버스터

표 6. 동대구역 야간조명에 대한 인식
Table 6. The recognition of Dongdaegu station's night lighting

N=458

변 인	M	SD
야간조명상태 평가	2.91	0.75
야간조명의 밝기 평가	2.94	0.74
건물과 야간조명의 조화	2.78	0.86

표 7. 동대구역 주변지역의 야간조명의 상태 평가
Table 7. The condition valuation of night lighting of Dongdaegu station's area

변 인	구 분	N([%])
동대구역사 (구관) 앞 광장 (택시승강장 포함)	매우 좋다	7(1.6)
	조금 좋다	93(21.0)
	보통이다	246(55.7)
	조금 나쁘다	81(18.3)
	매우 나쁘다	15(3.4)
	M(SD) 2.99(0.77)	
동대구역사 (구관) 좌측 (계단을 포함한 주차장연결통로)	매우 좋다	4(0.9)
	조금 좋다	46(10.4)
	보통이다	217(49.2)
	조금 나쁘다	152(34.5)
	매우 나쁘다	22(5.0)
	M(SD) 2.68(0.76)	
동대구역사 (구관) 우측 (계단을 포함한 고속버스터미널연결 통로)	매우 좋다	6(1.4)
	조금 좋다	66(15.0)
	보통이다	190(43.3)
	조금 나쁘다	136(31.0)
	매우 나쁘다	41(9.3)
	M(SD) 2.68(0.89)	
동대구역사(신관) (지하철 연결통로)	매우 좋다	27(6.1)
	조금 좋다	120(27.1)
	보통이다	191(43.2)
	조금 나쁘다	93(21.0)
	매우 나쁘다	11(2.5)
	M(SD) 3.13(0.90)	
동대구역사 (신관) 뒷편 (계단을 포함한 주차장쪽 광장)	매우 좋다	10(2.3)
	조금 좋다	52(12.0)
	보통이다	209(48.0)
	조금 나쁘다	141(32.4)
	매우 나쁘다	23(5.3)
	M(SD) 2.74(0.82)	
동대구역 지하철역	매우 좋다	14(3.2)
	조금 좋다	92(20.8)
	보통이다	188(42.5)
	조금 나쁘다	122(27.6)
	매우 나쁘다	26(5.9)
	M(SD) 2.88(0.91)	
고속버스터미널 옆 광장	매우 좋다	11(2.5)
	조금 좋다	42(9.5)
	보통이다	168(37.8)
	조금 나쁘다	169(38.1)
	매우 나쁘다	54(12.2)
	M(SD) 2.52(0.91)	

미널연결통로) 또한 평균 2.68점으로 구관쪽은 야간 조명의 상태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대구역사 신관(지하철 연결통로)은 평균 3.13점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동대구역사(신관) 뒷편(계단을 포함한 주차장 쪽 광장)은 평균 2.74점, 고속버스터미널 옆 광장 또한 평균 2.52점으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신관의 지하철 연결통로를 제외하면 동대구역 주변지역의 야간조명은 대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대구로의 야간조명 현황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동대구로에서 도시경관을 가장 해치는 것은 동대구역과 마찬가지로 혼잡한 거리(21.5%)로 나타났으며, 통일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디자인(19.5%)도 동대구로의 경관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대구로에 접해 있는 공공건물들이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건물 각각의 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대구로에서의 조명의 역할은 활동적인 거리를 만드는 빛(27.9%), 거리의 얼굴을 만드는 빛(랜드마크)(2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조명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주민들은 거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대구로에서 가장 중요한 조명의 종류는 가로조명(34.5%), 수목조명(2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건축물 외벽조명은 27.0%로 나타났다. 이는 동대구로가 넓은 폭을 가진 도로이면서, 보기 드물게 중앙분리대로 수목대로를 이루고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목조명을 잘 활용하여 경관조명을 디자인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야간조명 중 도시경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조명의 밝기(27.9%), 광원색(24.3%) 순으로 나타났다. 가로등 선호 광원의 색은 노란색이 43.9%로 가장 많았다.

표 8. 동대구로의 야간조명 현황
Table 8. The night lighting present condition of Dongdaeguro

변 인	구 분	N(%)
도시경관을 가장 해치는 것	어두운 가로등	46(10.2)
	어두운 건물조명	70(15.5)
	조화롭지 않은 색채	59(13.1)
	혼잡한 거리	97(21.5)
	통일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88(19.5)
	개성 없는 건물 외관	63(13.9)
	어수선한 중앙분리대 수목	24(5.3)
	기타	5(1.1)
야간조명의 역할	거리의 얼굴을 만드는 빛(랜드마크)	121(26.6)
	도시의 구조를 알기 쉬운 야간경관의 정비	101(22.2)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인 야간경관	47(10.3)
	개성있는 야간경관	53(11.6)
	활동적인 거리를 만드는 빛	127(27.9)
	기타	6(1.3)
가장 중요한 조명의 종류	가로조명	157(34.5)
	수목 조명	134(29.5)
	건축물 외벽 조명	123(27.0)
	간판 조명	32(7.0)
	광고 조명	9(2.0)
도시경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	조명의 밝기	124(27.9)
	광원의 색	108(24.3)
	광원의 종류	54(12.2)
	조명기구의 디자인	88(19.8)
	조명기구의 배열	66(14.9)
기타	4(0.9)	
가로등 선호 광원색	흰색	158(35.4)
	노란색	196(43.9)
	붉은색	60(13.5)
	기타	32(7.2)
야간조명 선호 광원색	노란색	151(33.6)
	녹색	84(18.7)
	파란색	43(9.6)
	흰색	101(22.5)
	기타	11(2.4)
야간조명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거리를 밝게 해야 한다	96(21.4)
	조명기구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야 함	86(19.2)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함	191(42.6)
	야간조명의 눈부심이 강하지 않게 해야 함	37(8.3)
	광원의 색을 개선하여야 함	20(4.5)
	광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함	18(4.0)

표 9. 동대구로의 야간조명에 관한 인식
Table 9. The recognition of Dongdaeguro's night lighting

N=458

변 인	M	SD
야간조명상태 평가	2.81	0.70
야간조명 밝기 평가	2.81	0.74
건물과 야간조명의 조화	2.67	0.77
가로등의 밝기 평가	2.81	0.69

동대구로의 야간조명에 관한 인식조사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조명상태평가 결과 5점척도에서 평균 2.81점으로 다소 나쁘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밝기 또한 평균 2.81점으로 다소 어두웠으며, 건물과 야간조명의 조화 또한 평균 2.67점으로 다소 조화롭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로등의 밝기 또한 평균 2.81점으로 다소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대구로의 경관조명은 밝기도 어둡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대구시 동대구로의 경관조명에 대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동대구로에 방문하는 횟수가 1달에 1번 이상이 63.5%이며 거의 매일 방문하는 비율이 12.0%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관조명을 한다면 객관성을 갖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야간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명이며, 야간경관에서 가장 열악한 것 또한 조명이었다. 따라서 경관조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동대구역은 대구의 관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부족하였다.

넷째, 동대구역 주변지역의 야간조명 상태 평가 결과, 광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동대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조명 또한 광장조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의식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동대구역 경관조명을 디자인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야간조명의 상태 평가 결과가 가장 낮은 광장조명을 우선적으로 경관조명을 디자인하고, 이때 ‘자연’, ‘도시의 이미지 제고’, ‘도시의 안전 확보’, ‘거리의 얼굴을 만드는 빛’, ‘활동적인 거리를 만드는 빛’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동대구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상업업무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가로조명과 수목조명을 중심으로 한 경관조명을 디자인하여 활동적인 거리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주민의식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을 한다면 도시의 미관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의 이미지향상과 거주민의 사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References

- [1] 김미연, “가로경관 조명설계를 위한 건축물 외관유형과 경관조명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 [2] 최택진 외, “건물 경관조명 설계 기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14(2), pp18~25, 2000.
- [3] 정근영 외, “한강교량 경관조명의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27~30, 2001.
- [4] 정유근,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조명환경 실태조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pp40~47, 2004.
- [5] 박성률 외, “쇼핑용 건물외관의 야간표면회도 특성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 7권 제1호, pp39~42, 2007.
- [6] 신주영 외, “상업가로의 유형에 따른 조명환경 특성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 7권 제 1호, pp21~24, 2007.

◆ 저자소개 ◆

안옥희(安玉姬)

1961년 11월 28일생. 일본 나라여자대학 생활환경학 전공(박사). 현재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본 학회 국제이사.

이인효(李仁孝)

1981년 7월 10일생. 2007년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실내환경디자인 전공(석사). 현재 동대학 박사과정.